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5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다함께
----------------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살이에 지쳐 허덕일 때, 주님은 하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힘에 겨워 얼굴이 굳어지고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평안을 창조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서 모든 거짓을 씻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몸짓 하나 하나가 살아 계신 주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살전2:19-20 .....	인도자
----------------	-----------------	-----

♠ 교 독 문 .....	19. 시편 84 편 .....	다함께
---------------	-------------------	-----

♠ 경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	---------------------	-----

대표기도 .....	I. 노순옥 권사 II. 장영숙 전도사
------------	-----------------------

응 답 송 .....	성가대
-------------	-----

찬 송 .....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눅15:25-32 .....	인도자
------------	--------------------	-----

	II. 창1:9-13 .....	임원민 집사
--	-------------------	--------

찬 양 .....	성가대
-----------	-----

말 씬 .....	I. 대화의 문 열렸으니 .....	김기석 목사
-----------	---------------------	--------

	II. 무엇을 보셨습니까? .....	김기석 목사
--	----------------------	--------

거둠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	508. 주와 같이 되기를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추하다 해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희망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 매사를 어렵게 보고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이오나,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가락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2회 신앙강좌	에베소서 강해(5)
강사 : 양재성 목사	기도 : 최종원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이순정 권사

<b>4월</b>	영접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훈동	송동준	임창선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하현철	유영남	구명자	안정숙

## 있는 그곳에 그대로 두라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있다고 느끼고,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정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또 더러워 보여서 그는 그곳을 떠나 숲으로 들어가버렸다. 숲에서 그는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새똥이 떨어졌다. 그는 말했다. “숲도 머물 데가 못 되는군.” 그는 강가로 내려가 강물 속에 섰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자 그는 혐오감이 들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피조물 전체가 좋지 않다. 죽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물에서 나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불을 지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에게 말했다. “형제여, 당신은 왜 죽을 준비를 하는가?” 그가 대답했다. “온 세상이 다 상서롭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러자 행인이 말했다. “당신의 더러운 몸, 그 살덩이가 타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소? 나는 여기서 멀지도 않는 곳에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요? 머리카락 한 올만 태워도 그 냄새가 역겨운 것을! 이제 당신의 온몸이 탈 테니 당신이 퍼뜨리게 될 악취를 좀 생각해보시오.” 그러자 그는 당황하여 이렇게 외쳤다. “이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면, 나는 어찌란 말이요?”

모든 피조물을 나쁘고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진실로 세계는 있는 그대로 상서로운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하나의 작은 지점에 모아들일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친근해지다 보면 멀지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것들과는 친근해져야 하지만, 다른 것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선생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겸손하게 앉는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다가가 그 무릎에 앉는다. 실체의 다양한 형상을 대하는 데에는 저마다 적절한 방식이 있다. 우리는 꽃을 보면 가까이 가게 되고, 불을 보면 뒷걸음질을 친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로 지이다. 우리는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하면 더욱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한 즐거움은 사물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데 있다. 멀리 있어 기쁨을 주는 것이 가까이에 있으면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곳에 그대로 두고 멀리서 즐겨야 한다. 억지로 친해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사람은 먼 대상에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거리 자체가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구석에 처박아두고 소홀히 하며, 멀리 있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나의 스바다르마(\*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가 시시하고 불완전하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기에 나에게서는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통나무 하나가 그의 곁에 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통나무이다. 그 나무가 잘생기고 매끈하고 윤기가 나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목수의 작업장에는 아름답고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업장에 있고, 지금 그는 물에 빠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거칠고 못생긴 통나무만이 그를 구해줄 수 있다. 그는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비노바 바베 지음·사티쉬 쿠마르 엮음, 《버리고, 행복하라》 중에서

## 한 가지를 변화시키면

어렸을 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도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되고 아이였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어느 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희망과 상상력, 어린아이 같은 열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한 가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나머지 세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영혼의 정원》 중에서

## 당신이 가장 잘 아시나이다

옛날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이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 주소서” 하고 기도했다. 주님께서서는 단비를 내려주셨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다. “주님, 제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니 밝은 태양을 주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수도사는 외쳤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는 서리가 얹아 반짝였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웬일인지 올리브 묘목은 죽어 있었다.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그의 이상을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하고 운을 떼면서 그의 동료는 말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은 나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만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히 베푸소서. 주님께서 이 나무를 지으셨으니 나무에게 필요한 게 뭔지 너무도 잘 아시나이다’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조관행 홍선희 최종원 김용진  
 박효선 김정길 최숙화 정완수 김재광 김혜권 안정숙 박정숙 홍순구  
 안홍숙 임보람 최인환 김성한 조영순

### 월정헌금:

표명화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 감사헌금:

김춘려 박옥식 김준호 곽혜자 고사일 최영선 안길상 이형숙 김진경  
 송동준 김용진 박효선 홍순구 안홍숙 오현정 고재중 안종일 정현주  
 박홍재 김수빈 무명2

### 생일감사헌금: 장동윤

구도헌금: 김기석 베다니속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유 영 남	김 정 섭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문 인 옥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곽 혜 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진 정 속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박 홍 재	임 창 선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김 정 속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속	장 혜 속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최 종 원	한 선 희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속	안 홍 속	이 영 옥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정 영 선	김 회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혜 경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유 혜 경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박 혜 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4월 정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신앙강좌** : 오늘 오후 집회는 제2회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양재성 목사님께서 '생명 세상을 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3. **교회설립기념일** :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9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4. **유치부 야외예배** : 유치부 어린이들은 용산 가족공원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경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5. **심방** : 27(수)-안디옥속 29(금)-시온속
6. **주소록** : 주소가 잘못 기재되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수정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출해주시시오.
7. **신앙실천** : 교회 설립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십시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십시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헌화 : 조항범·오현정(결혼기념)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